

한양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인문 계열

모 의 논 술

수험번호 () 성명 ()

[문제] (가)와 (나)에서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윤리’와 ‘정체성’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고, (다)의 사례를 활용하여 ㉠의 입장에서 ㉡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1200자, 100점)

(가)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인이 악행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결과가 예견된 것도 아니고 의도된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 내 자신이 능동적 원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행위와 밀접한 인과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그렇다. 그런데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 부과와 관련되지 않고 행위되어야 할 것의 결정과 관련된 전혀 다른 책임의 개념이 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나의 행동 결과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책임의 대상은 나의 밖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나의 권력에 의존하고 또 나의 권력 작용 영역 안에 있게 된다. 권력은 이미 나의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한 원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책임도 나의 것이 된다. 오늘날 필요한 책임의 윤리에 관해 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지나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같은 의미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의미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중요한 문제들의 지평 앞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사회 혹은 자연의 요구들에 정면 대립하면서, 역사나 연대적 고리를 차단해가면서, 오직 자기실현에만 골몰하고 있는 양태들 속에서 이상은 스스로 파괴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만을 중심에 놓는 나르시시즘의 형태들은 참으로 천박하고 진부하다. 그런 삶들은 안목이 매우 좁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삶들이 자기 진실성의 문화에 속해 있지 않고 ㉡자기 진실성의 요구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생겨나는 요구들을 차단한다는 말은 의미 창출의 조건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상의 추구를 포기하는 자기 폐쇄는 자신을 윤리적으로 망쳐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 폐쇄는 이상 실현의 조건들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배경에 두고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나 자신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괘호 속에 묶는다는 것은 내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가능한 사항들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역사나 현실의 요구,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 시민의 의무 등이 결정적으로 문젯거리가 되는 세상에 존재할 때에만 나는 진부하지 않은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기 진실성은 자신을 넘어서는 영역으로부터 오는 요구들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요구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훔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중, <방문객>